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1.129

JCCT 2023-1-15

유아기의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유아기 외현화문제행동과 학교준비도의 이중매개효과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Efficacy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in 1st Grade of Elementary School: Double Mediating Effects of Externalized Problem Behaviors and School Readiness in Early Childhood

허은하*, 김상림**

En Ha Her*, Sang Lim Kim**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기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기 외현화문제행동과 학교준비도의 매개효과를 고찰하는 것이다.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사용했으며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유아기 매개효과를 검증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유아기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유아기의 외현화문제행동과 학교준비도는 각각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기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외현화문제행동과 학교준비도는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어 : 학교적응, 어머니 양육효능감, 외현화문제행동, 학교준비도

Abstract The research purpose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efficacy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in the first grade of elementary, using young children's external problem behaviors and school readiness as the mediating variables. KICCE panel data were analyzed utilizing SPSS and Process macro. As results, young children's externalized problem behaviors and school readiness were found to have partial mediating effe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school adjustment. In addition, the complete double mediating effect by externalized problem behaviors and school readiness was proved.

Key words: School adjustment, mothers' parenting efficacy, externalized problem behaviors, school readiness

1. 서론

학교는 학습자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지식 습득의 목표로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교육기관이며, 다양한 활동

을 통해 작은 사회를 경험하게 하는 사회적 조직이다 [1]. 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은 학교적응이라는 발달과제와 새로운 도전을 직면하게 된다. 학교적응은 아동이 학교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전반

* 정희원, 인천대학교 대학원 유아·숲·자연교육학과 박사 (제1저자)

**정희원, 인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10월 5일, 수정완료일: 2023년 10월 19일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5일

Received: October 5, 2023 / Revised: October 19, 2023
Accepted: November 5, 2023

*Corresponding Author: slkim@inu.ac.kr,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적인 학교생활에서 성공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된다[2]. 즉, 학교적응은 학교라는 환경 안에서 규칙과 학교수업에 잘 적응하고, 개인과 학교 환경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적극적인 발달과정이다.

초등학교에 대한 적응은 이후의 성공적인 발달과 교육적인 목표 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3].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아동은 우울, 공격성, 과잉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며, 이러한 문제행동은 중·고등학교 시기뿐만 아니라 성인기에까지 영향을 받는다[4-5]. 유아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로의 전이에 따른 학교적응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기의 변인을 횡단적 연구설계를 사용하여 고찰한 선행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6-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이와 관련된 유아기 주요변인이 미치는 단기 종단적 영향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변인으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들 수 있다. 아동의 학교적응은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요인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으며 특히 가정요인 중 어머니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양육효능감은 Bandura의 자아효능감(self-efficacy) 개념에 기초한 것으로, 부모로서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양육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잘 해결하여 부모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이다[9-10]. 부모의 높은 양육효능감은 구체적인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의 사회·심리적 적응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1]. 특히,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높은 양육효능감은 자녀 양육에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습득으로 이어지며, 자녀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과 일관적인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발달과 초등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12-14].

어머니 양육효능감과 함께 초등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변인으로 유아기의 문제행동을 들 수 있다. 문제행동은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한다[15]. 유아기 문제행동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초등학교적응 및 학업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청소년기 비행은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16-17]. 문제행동은 부정적인 정서를 표출하

는 방법에 따라 내재화문제행동과 외현화문제행동으로 분류된다[18-19]. 내재화문제행동은 불안, 위축, 우울 등 개인 내부를 향하는 문제행동이며, 외현화문제행동은 공격행동, 과잉행동, 비행 등 외부로 표출되는 문제행동을 의미한다. 외현화문제행동은 외부로 표현되는 행동 특성으로 인해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적절한 중재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사회관계와 관련하여 장기적 영향을 미친다. 즉, 또래로부터의 거부나 주변 성인들로부터의 부정적인 피드백으로 이어질 수 높으며,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거쳐 성인기에 이르기까지의 사회·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20-21]. 나아가 유아기 외현화문제행동과 아동의 초등학교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유아기에 외현화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은 초등학교 입학 후에 구조화된 학교일과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또래, 교사, 학업문제와 같은 학교적응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2-2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외현화문제행동이 아동기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한편, 외현화문제행동과 함께 아동의 초등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으로 학교준비도가 있다. 학교준비도는 취학 전 유아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 준비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지발달 뿐만 아니라 학습에 대한 바른 태도나 올바른 사회능력 및 정서 범위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한다[26-27]. 유아기의 학교준비는 초등학교 생활 전반을 위한 적응에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된다.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동의 학교준비도는 초등학교에서의 성공적인 적응과 역할수행을 예측하고 부적응 문제를 예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28-2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대하여 유아기의 어머니 양육효능감과 외현화문제행동 및 학교준비도는 서로 인과적으로 관련되어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미치는 유아기 변인 중 어머니 양육효능감, 외현화문제행동, 학교준비도를 선정하여 어떠한 경로로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기의 어머니 양육효능감과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 간 관계에서 유아기 외현화문제행

동과 학교준비도의 개별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기의 어머니 양육효능감과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 간 관계에서 유아기 외현화문제행
동과 학교준비도의 이중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KICCE)의 한국아동
패널(PSCK) 자료 중 연구대상 아동이 만 6세가 되는 7
차년도(2014년)와 만 7세가 되는 8차년도(2015년) 자료
를 사용했다[30].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제시하면, 7차년
도($N = 1,203$)와 8차년도($N = 1,031$) 아동의 평균 월령
은 각 75개월과 87개월이었다. 7차년도 자료에 근거하여
추가적 배경을 기술하면, 아동의 성별분포는 남아
51.7%($n = 622$), 여아 48.3%($n = 581$)이었다. 연구대상
어머니의 연령 분포는 20대 54.2%($n = 651$), 30대
28.8%($n = 347$), 40대 17.0%($n = 205$)이었으며, 학력 분
포는 고졸 이하 29.3%($n = 471$), 대졸 65.0%($n = 1,046$),
대학원졸 0.1%($n = 1$)로 나타났다.

2. 연구 도구

1) 학교적응

연구대상의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
해 지성애와 정대현이 개발한 학교적응 척도를 한국아
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하여 사용했다[30-31]. 본 척도는
총 35문항, 4가지 하위요인(학교생활적응, 학업수행적
응, 또래적응, 교사적응)으로 구성된다. 연구대상 아동의
교사가 각 문항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
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는 5점 Likert식 척도이다. 총
점 및 하위요인 점수를 사용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
교적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나타난 척도
의 문항내적신뢰도 Cronbach's α 는 .97이었다.

2)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해 Gibaud-
Wallston과 Wandersman이 개발하고 신속재가 번안 후
오미연이 사용한 도구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하
여 사용했다[30, 32-34]. 본 척도는 총 13문항, 2가지 하
위요인('부모 유능감', '부모 불안감')으로 구성된다. 해당
아동의 어머니가 각 문항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1
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는 5점 Likert식 척

도이다. 총점을 사용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
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나타난 척도의 문항내
적신뢰도 Cronbach's α 는 .88이었다.

3) 외현화문제행동

외현화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Achenbach와
Rescorla가 개발하고 오경자와 김영아가 번안 후 표준
화한 아동행동 평가척도(CBCL: Child Behavior Check
-list)중 외현화문제행동 관련 문항을 사용했다[19, 35,
46]. 본 척도는 총 24문항, 2가지 하위요인('주의집중 문
제', '공격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아동의 어머니
가 각 문항을 읽고 '아니다(0점)'부터 '매우 혹은 종종(2
점)'으로 응답하는 3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
록 외현화문제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나타난 척도의 문항내적신뢰도 Cronbach's α 는 .88이
었다.

4) 학교준비도

학교준비도를 측정하기 위해 Murphey와 Burns가 개
발하고 한국아동패널 연구팀이 번안한 유아기 학교준비
도 척도를 사용했다[30, 36]. 본 척도는 총 22문항, 4가지
하위요인('사회 정서 발달', '학습에 대한 태도', '의사소
통',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으로 구성된다. 해당 아
동의 담임교사가 각 문항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1
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하는 4점 Likert식 척
도이다. 총점을 사용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기 학
교준비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문항내적신뢰도
Cronbach's α 는 .93이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SPSS Statistics 22.0과 SPSS PROCESS
macro version 4.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술통계 분
석과 함께 Cronbach's α 값을 산출했으며 Pearson의 상
관관계분석을 실시했다. 연구문제 검증을 위해 부트스
트래핑 분석 시 표본을 5,000번 추출, 신뢰구간을 95%
로 설정했다.

III. 연구결과

1. 예비분석

본 분석에 앞서 주요 변인의 경향과 정규분포성을 확
인했다. 평균(표준편차)을 살펴보면, 어머니 양육효능감
 $M = 3.42(SD = .50)$, 외현화문제행동 $M = .23(SD =$

.22), 학교준비도 $M = 3.49(SD = .41)$, 학교적응 $M = 4.00(SD = .71)$ 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의 왜도(Skewness)는 $-1.59 \sim 1.38$, 첨도(Kurtosis)는 $-.12 \sim 4.01$ 이었으며, 절대값이 각각 3과 10을 넘지 않았으므로 정규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됐다.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종속변인인 학교적응과의 상관관계를 알아 본 결과, 어머니 양육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r = .10, p < .01$), 외현화문제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관계($r = -.15, p < .01$), 학교준비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r = .33, p < .01$)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유아기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초등학교 1학년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아기 외현화문제행동과 학교준비도의 매개효과

1) 유아기 외현화문제행동의 매개효과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외현화문제행동의 매개효과를 분석했다(표 1, 표 2). 표 1에서와 같이, 독립변인인 어머니 양육효능감은 매개변인인 외현화문제행동($B = -.17, p < .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쳤고, 매개변인인 외현화문제행동은 종속변인인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B = -.45, p < .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영향을 주었다. 매개변인 투입 시 유아기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영향력의 정도가 감소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B = .14, p < .001 \rightarrow B = .07, p < .01$) 부분매개 모형이 지지되었다.

표 1.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외현화문제행동의 매개효과 검증
Table 1. Mediating Effect of Externalized Problem Behaviors by Bootstrapping

경로	B	S.E.	LLCI	ULCI	R ² (F)
양육효능감 →외현화문제행동	-.17***	.01	-.19	-.14	.15 (174.26***)
외현화문제행동 →학교적응	-.45***	.11	-.67	-.23	.03 (13.00***)
양육효능감 →학교적응	.07***	.05	.73	.90	-
양육효능감 →학교적응	.14***	.05	.06	.23	.01 (10.07***)

*** $p < .001$

표 2에서와 같이, 부트스트래핑으로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03 ~ .12), 95% 신뢰수준에서 신뢰구간의 값이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유아기의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유아기의 외현화문제행동이 이러한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2. 유아기 어머니 양육효능감과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유아기 외현화문제행동의 매개효과
Table 2. Mediating Effect of Externalized Problem Behavi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School Adjustment in the First Grade of Elementary School

경로	Effect	S.E.	LLCI	ULCI
양육효능감 →외현화문제행동 →학교적응	.08	.02	.03	.12

2) 유아기 학교준비도의 매개효과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교준비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했다(표 3, 표 4). 표 3에서와 같이, 독립변인인 어머니 양육효능감은 매개변인인 학교준비도($B = .11, p < .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쳤고, 매개변인인 학교준비도는 종속변인인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B = .57, p < .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영향을 주었다. 매개변인 투입 시 유아기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영향력의 정도가 감소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B = .17, p < .001 \rightarrow B = .10, p < .001$) 부분매개 모형이 지지되었다.

표 3.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학교준비도의 매개효과 검증
Table 3. Mediating Effect of School Readiness by Bootstrapping

경로	B	S.E.	LLCI	ULCI	R ² (F)
양육효능감 →학교준비도	.11***	.03	.06	.17	.02 (16.60***)
학교준비도 →학교적응	.57***	.06	.45	.68	.12 (54.36***)
양육효능감 →학교적응	.10***	.05	.01	.19	-
양육효능감 →학교적응	.17***	.05	.07	.26	.01 (11.75***)

*** $p < .001$

표 4에서와 같이, 부트스트래핑으로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03 ~ .10), 95% 신뢰수준에서

신뢰구간의 값이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유아기의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유아기의 학교준비도가 이러한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4. 어머니 양육효능감과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의 관에서 학교준비도의 매개효과
 Table 4. The Mediating Effect of School Readi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School Readiness

경로	Effect	SE	LLCI	ULCI
양육효능감 →학교준비도 →학교적응	.06	.02	.03	.10

3. 유아기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아기 외현화문제행동과 학교준비도의 이중매개효과

유아기의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유아기의 외현화문제행동과 학교준비도가 이중매개하는가에 대해 검증했다(표 5).

표 5. 유아기 어머니 양육효능감과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외현화문제행동과 학교준비도의 이중매개효과
 Table 5. The Dual Mediating Effect of Externalized Problem Behaviors and School Readi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School Readiness in the First Grade of Elementary School

경로	B	S.E.	LLCI	ULCI	R ² (F)
양육효능감 → 외현화문제행동	-.16***	.01	-.19	-.14	.15 (142.87***)
양육효능감 →학교준비도	.07*	.03	.01	.13	.04 (15.64***)
외현화문제행동 →학교준비도	-.26***	.07	-.40	-.12	-
외현화문제행동 →학교적응	-.27*	.12	-.50	-.03	.12 (38.23***)
학교준비도 →학교적응	.55***	.06	.44	.67	-
양육효능감 →학교적응	.06	.05	-.04	.16	-
양육효능감 →학교적응	.17***	.05	.07	.27	.01 (12.08***)

***p < .001

표 5에서와 같이, 독립변인인 어머니 양육효능감은 제1 매개변인인 외현화문제행동(B = -.16, p < .001)에 부정적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제2 매개변인인 학

교준비도(B = .07, p < .05)에는 정적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제1 매개변인인 외현화문제행동은 제2 매개변인인 학교준비도(B = -.26, p < .001)와 종속변인인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B = -.27, p < .05)에 유의한 부정적영향을 미치고, 학교준비도는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B = .55, p < .001)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유아기 어머니 양육효능감과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 간 관계에서 외현화문제행동과 학교준비도가 매개변인으로 투입되었을 때,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외현화문제행동과 학교준비도가 두 변인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유아기의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유아기의 외현화문제행동과 학교준비도가 순차적으로 매개함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이중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간접효과를 검증했다. 그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LLCI .01, ULCI .04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IV. 논의 및 제언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의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외현화문제행동과 학교준비도 각각이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기의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초등학교 입학 시 학교적응에 직접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유아기의 외현화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학교준비도를 증가시킴으로써 간접적인 종단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유아기 외현화문제행동과 학교준비도가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22, 24, 28]. 나아가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외현화문제행동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높은 양육효능감이 자녀의 외현화문제행동을 감소시키며 전인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한다[39]. 이와 함께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학교준비도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높은 양

육효능감이 유아의 학교준비도와 연관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38-39].

둘째, 유아기의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외현화문제행동과 학교준비도는 완전 이중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유아기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은 경우 자녀의 외현화문제행동이 감소되며, 이는 학교준비도 수준을 높여주어, 궁극적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의 학교적응 수준을 높여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적응에 미치는 유아기 변인들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는 거의 실행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는 높은 양육효능감이 외현화문제행동 감소에 미치는 영향, 외현화문제행동과 학교준비도 간 상관관계, 학교준비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등 각 관계를 고찰한 선행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13, 39].

나아가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유아기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영향은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주지만, 이 보다 외현화문제행동 및 학교준비도를 매개로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초등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적 검증 결과로 초등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시사한다. 초등학교 입학에 앞둔 유아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양육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의 경우, 아동의 문제행동과 학교준비도를 다루는 내용을 포함하여 맞춤형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초등학교 이후의 학교적응을 위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한 시점의 특정 변인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두 개 이상 시점의 다양한 변인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주양육자를 어머니로 간주하여 양육효능감의 영향을 분석했다. 추후연구에서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구조를 고려하여 아버지 또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담임교사의 평정을 통해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을 측정했다. 초등학교 적응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위해, 아동의 직접 응답이나 면담 또는 관찰 등의 질적 자료를 사용한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의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유아기 외현화문제행동과 학교준비도가 갖는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유아기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외현화문제행동과 학교준비도는 각각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유아기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외현화문제행동과 학교준비도는 완전 이중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결과는 초등학교 적응에 종단적 영향을 미치는 유아기 변인의 중요성을 실증적 자료와 통계적 검증을 통해 밝혔는데 의의가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유아기 부모교육과 유아행동지도 및 유치연계지원이 성공적인 초등학교 적응에 중요함을 제안한다.

References

- [1] E. H. Her, and S. L. Kim, "The Longitudinal Effects of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 on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Self-Esteem and Academic Ability as Mediating Factor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KJHE)*, Vol. 30, No. 4, pp. 565-579, 2021. DOI: 10.5934/kjhe.2021.30.4.565
- [2] G. W. Ladd, B. J. Kochenderfer, and C. C. Coleman, "Classroom Peer Acceptance, Friendship, and Victimization: Distinct Relational Systems that Contribute Uniquely to Children's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CD)*, Vol. 68, No. 6, pp. 1181-1197, 1997. DOI: 10.1111/j.1467-8624.1997.tb01993.x
- [3] J. M. Richman, G. L. Bowen, and M. E. Woolley, "School failure: An Eco-Interactional Development Perspective." In M. W. Fraser (Ed.),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An Ecological Perspective* (pp. 133-160). Washington, DC: NASW Press, 2004.
- [4] J. H. Choi, "Analysis of Effects of Child's Behavioral Problem and Peer Victimization on School Adjustment and Friendship," *SOOK-MYUNG JOURNAL OF CHILD STUDY*

- (*SMJCS*), Vol. 14, No 2, pp. 59–89, 2000.
- [5] G. H. Brody, V. M. Murry, S. Kim, and A. C. Brown, “Longitudinal Pathways to Competence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African American Children Living in Rural Single-Parent Households,” *Child Development (CD)*, Vol. 73, No. 5, pp. 1505–1516, 2002. DOI: 10.1111/1467-8624.00486
- [6] H. I. You, and H. Y. Kim, “Effects of Early Childhood Play Behavior and Academic Ability on Elementary School Adapt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JLCCI)*, Vol. 20, No. 5, pp. 269–287, 2020. DOI: 10.22251/jlcci.2020.20.5.269
- [7] S. A. Lee, and S. A. Lim, “The Mediated Effects of School Readiness and Social Skill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and First Graders’ School Adjustment,” *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JKEE)*, Vol. 30, No. 1, pp. 221–233, 2019. DOI: 10.20972/Kjee.30.1.201903.221
- [8] E. H. Her, and S. L. Kim, “A Longitudinal Study on the Trajectories and Influencing Factors of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Applying Growth Mixture Model and Latent Class Analysi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KJCS)*, Vol. 42, No. 1, pp. 45–60, 2021. DOI: 10.5723/kjcs.2021.42.1.45
- [9] A. Bandur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s (PR)*, Vol. 84, No. 2, pp. 191–215, 1977.
- [10] C. V. Johnston, and E. J. Mash,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JCCP)*, Vol. 18, No. 2, pp. 167–175, 1989. DOI: 10.1207/s15374424jccp1802_8
- [11] P. K. Coleman, and K. H. Karraker,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DR)*, Vol. 18, pp. 47–85, 1997.
- [12] P. K. Coleman, and K. H. Karraker, “Maternal Self-efficacy Beliefs, Competence in Parenting, and Toddlers’ Behavior and Development Statu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IMHJ)*, Vol. 24, No. 2, pp. 126–148, 2003.
- [13] K. M. Kim, and S. H. Ah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Behaviors, Home Environment, and Preschool Children’s Learning Behavior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JKHEA)*, Vol. 48, No 1, pp. 15–26, 2010.
- [14] S. C. Kim, and K. J. Kwak, “An Investigation into the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in the First Grade of Elementary School (I),”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KJHD)*, Vol. 17, No 4, pp89–109, 2010.
- [15] I. S. Koh, and J. S. Lee, “Effect of Preschools’ problem behavior by Social competence and Emotive intelligence,” *Korean Journal of Child Psychotherapy (KJCP)*, Vol. 3, No 1, pp. 93–111, 2008.
- [16] Y. Kim, and T. S. Han, and I. H. Jung, and Y. G. Park, and H. J. Hwang, and H. A. Koo, “A Structural Sample of the Effects of Rearing, Temperament, Cognitive Ability, and Social Competence on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JKOAECE)*, Vol. 11, No 2, pp. 229–250, 2006.
- [17] S. O. Yoo, “A Clustering Study of Young Children’s Challenging Behaviors and Occurrence Rate through Age 2 to 5,”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KJCS)*, Vol. 34, No. 6, pp. 57–75, 2013. DOI: 10.5723/KJCS.2013.34.6.57
- [18] S. H. Kim, “Trajectories of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in Young Children and its Associations with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and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Using Growth Mixture Modeling,”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KJCS)*, Vol. 39, No. 6, pp. 41–56, 2018. DOI: 10.5723/kjcs.2018.39.6.41
- [19] T. M. Achenbach, and L. A. Rescorla, “*Manual for the ASEBA preschool forms & profile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2000.
- [20] Y. Okado, and K. L. Bierman, “Differential Risk for Late Adolescent Conduct Problems and Mood Dysregulation Among Children with Early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JACP)*, Vol. 43, No. 4, pp. 735–747, 2015. DOI:10.1007/s10802-014-9931-4
- [21] J. Reef, S. Diamantopoulou, I. van Meurs, F. Verhulst, and J. van der Ende, “Predicting Adult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from Externalizing Problem Trajectories in a 24-Year Longitudinal Study,” *European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CAP)*, Vol. 19, No. 7, pp. 577–585, 2010. DOI: 10.1007/s00787-010-0088-6
- [22] D. W. Kim, and K. J. Lee, “The Influence of Early Childhood Self-Concepts and Internalization/Externalization Problem Behavior on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The Journal of Yeolin Edu*

- cation (*TJYE*), Vol. 29, No. 2, pp. 239-263, 2021. DOI: 10.18230/tjye.2021.29.2.239
- [23] B. R. No, and S. R. Park, and N. Y. Choi, and H. J. Park, "Examin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and Predictors of Early Childhood Externalizing Behavioral Problems and School Adjustment: A Growth Mixture Modeling Approach," *The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KJECSE)*, Vol. 18, No 2, pp. 175-201, 2018. DOI: 10.21214/kecse.2018.18.2.175
- [24] J. Y. Lee, and S. H. Lee, "Effect of Individual Variables, Children's Peer Interactions, Social Competence, and Children's Problem Behavior on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JECEEW)*, Vol. 23, No. 3, pp. 171-199, 2019.
- [25] M. K. Keiley, J. E. Bates, K. A. Dodge, and G. S. Pettit, "A cross-domain growth analysi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s during 8 years of childhood,"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JACP)*, Vol. 28, No. 2, pp. 161-179, 2000.
- [26] S. L. Kagan, E. Moore, and S. Bredekamp, "Reconsidering children's early development and learning: Toward common views and vocabulary." Washington, DC: National Education Goals Panel, 1995.
- [27] E. H. Her, and S. L. Kim, "The Effect of Teacher-Child Interaction on Young Children's School Readiness of Children in Transition Period of Elementary School: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Ability and Social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 Care (KJCEC)*, Vol. 20, No. 1, pp. 1-16, 2020. DOI: 10.21213/kjcec.2020.20.1.1
- [28] S. I. Kong, and M. K. Shim, "Effect of Infant Negative Emotionality and Parenting Sensitivity on School Adjustment: Mediating Effect on Problem Behaviors and School Readiness," *Journal of Cognitive Enhancement and Intervention (JCEI)*, Vol. 11, No. 4, pp. 71-88, 2020. DOI: 10.21197/JCEI.11.4.4
- [29] K. J. Cho, and S. H. Ahn, "Effect of Home Environment Quality and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on School Readiness of Preschool Childre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FER)*, Vol. 53, No. 3, pp. 229-239, 2015. DOI: 10.6115/fer.2015.018
- [30] KICC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Data and Codebook]," Retrieved May 1, 2022 from <http://panel.kicce.re.kr>
- [31] S. A. Chi, and D. H. Jung, "Validation of School Adjustment Inventory for First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KJCS)*, Vol. 27, No. 1, pp. 1-15, 2020.
- [32] S. J. Shin, "Effects of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and Parental Efficacy on Parenting Behavior,"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National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1997.
- [33] J. Gibaud-Wallston, and L. P. Wandersman,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1978.
- [34] M. Y. Oh, "A Comparative Study Between Fathers and Mothers on the Parenting Efficacy, Knowledge of Infant-care and Sensitivity,"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onbuk, South Korea, 2005.
- [35] K. J. Oh, and Y. A. Kim, "CBCL 1.5-5 Manual for Parents," Seoul: Huno Consulting, 2009.
- [36] D. A. Murphey, and C. E. Burns,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Community Assessment of School Readiness," *Early Childhood Research and Practice (ECRP)*, Vol. 4, No. 2, pp. 1-8, 2002.
- [37] E. J. Jeon, "A Structural Sample of the Effect of Maternal Attachment Style to Preschool Children, Parenting Efficacy on Young Children's Internalizing &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ECERR)*, Vol. 19, No 4, pp. 391-441, 2015.
- [38] H. J. Lim, "A study on effects of mothers' parental competence parental anxiety, and parenting style on children's school readiness,"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KSECE)*, Vol. 40, No. 6, pp. 291-315, 2020. DOI: 10.18023/kjece.2020.40.6.012
- [39] Y. A. Jung, and H. M. Park, "Differences in School Readiness and School Adjustment according to Profiles of Home Environment and Parenting in Early Childhood," *The Journal of Asian Women (JAW)*, Vol. 61, No 3, pp. 95-126, 2002. DOI: 10.14431/jaw.2022.12.61.3.95